

청소년들이 머무는 마을

강승현
김나운

스튜디오인로코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

개요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577번길 209
용도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 집)
대지면적	1만 3,056m ²
건축면적	1,647m ²
연면적	2,353m ²
규모	지상 2층
높이	13.45m
건폐율	12.62%
용적률	15.3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용우엔지니어링
설계	스튜디오인로코 건축사사무소(강승현·김나운) 이상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안택진)
설계담당	이상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오창준)
시공	(주)태영종합건설
기계·전기설계	기계/삼우엠이씨, 전기/천일엠이씨
설계기간	2015. 6 ~ 2015. 11
시공기간	2016. 2 ~ 2017. 2
공사비	약 42억 원
건축주	수원시청



다양한 덩어리의 집에 둘러싸인 빛의 우물

철보 문화의 집은 사방으로 녹지를 향해 열려 있는 공원 부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별 공간을 최대한 수평적으로 배치하였다. 개별 공간은 저마다 다른 층고와 풍경을 지니도록 계획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인 공간이 모여 건축물 전체를 이룬다는 명료한 사실 이상으로 사용자의 단편적인 경험이 연속되고 쌓여서 문화의 집 전체에 관한 복합적인 경험이 완성됨을 의미한다.





©이순진



작 철보 청소년 문화의 집 전경
 우·상 남동쪽 입면
 우·중 남서쪽 입면
 우·하 북측 어린이집에서 바라본 문화의 집



©이충건



©이충건



©이충건

- 상 빛의 우물과 서비스 타워
- 중 주출입구 옆 쉼터
- 하 소음영역 중심에 위치한 실외 데크



2층 심리상담센터에서 내려다 본 북카페



©이충건



©이충건



©이충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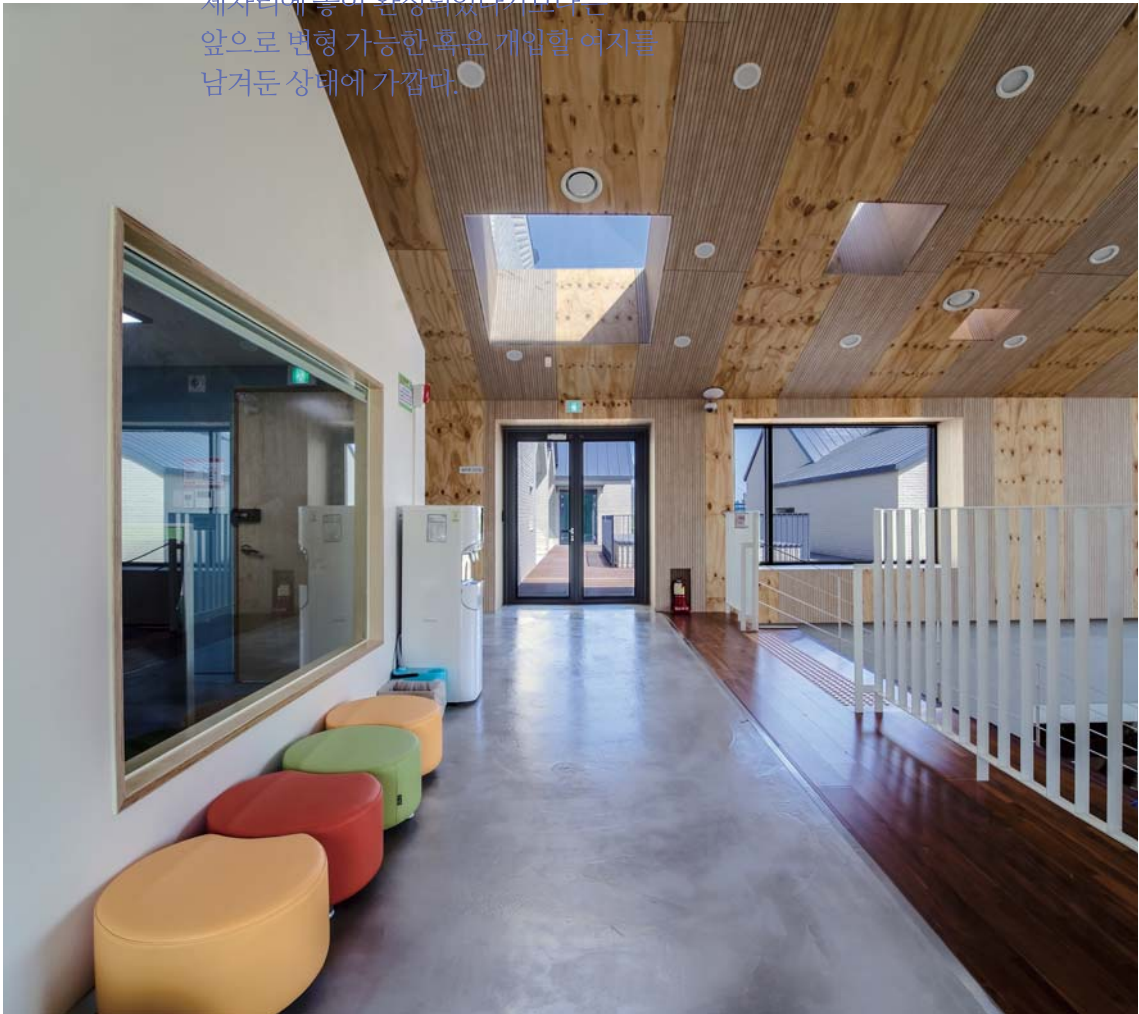
상 빛의 우물과 안내 데스크
하·좌 댄스연습실 1층에서 바라본 북카페
하·우 2층 복도와 공유의 벽



상 체육활동실의 바람개비 배열 개구부
중 다목적실 내부
하 댄스연습실 2층

유년을 벗어나 성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무궁한 열린 결말의
 이야기가 잠재해 있는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의 내부공간을 이루는
 요소와 재료들은 완벽하게
 제자리에 놓여 완성되었다기보다는
 앞으로 변형 가능한 혹은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 가깝다.

©이종건



2층 심리상담센터에서 바라본 2층 중정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 무목적의 목적성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넓은 범주의 청소년 그룹이 누리고 싶어 하는 활동과 분위기가 다양한 만큼 여러 또래그룹의 필요를 충족해야 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복합적이고 사려 깊은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계하면서 방문자들이 각자의 관심사나 흥미에 따라 주도적으로 취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특정 활동을 목적하지 않더라도 아무 거리낌없이 머물 수 있는 여유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설계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활동을 위한 독립된 공간뿐 아니라 공간과 공간 사이에 파생되는 영역에서도 다채로운 행위가 이루어지고 의미가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 문화의 집을 찾는 청소년들 외에 잠시 들르거나 남는 시간을 보내려는 이들에게 여전히 편안하고 쾌적한 쉴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기능과 쓰임새가 정의된 실과 실 사이에 쉬이 다닐 곳과 앉을 자리, 그리고 무리지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넉넉한 문화의 집을 그렸다. 입구에서 복도, 복도에서 실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공간 전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연령대와 관심사, 활동에너지, 향유하는 문화 혹은 언어만큼 무궁무진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담기에 적합한 입체적인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이루어졌다. 관리자의 편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획일적인 스케줄로 운영되는 문화센터와 구별되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머물 공간을 찾아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곳에서의 시간을 꾸러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의 집을 목표로 하였다.

비일상적 공간으로의 초대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기존 건물유형에서 발견되는 형태와 방식을 관찰하고 그와 구별되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 속 도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직으로 적층된 건물과 구별하고자 칠보 문화의 집은 사방으로 녹지를 향해 열려 있는 공원 부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별 공간을 최대한 수평적으로 배치하였다. 개별 공간은 저마다 다른 층고와 풍경을 지니도록 계획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인 공간이 모여 건축물 전체를 이룬다는 명료한 사실 이상으로 사용자의 단편적인 경험이 연속되고 쌓여서 문화의 집 전체에 관한 복합적인 경험이 완성됨을 의미한다.

©이출진



상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 전경
하 다양한 덩어리의 집에 둘러싸인 빛의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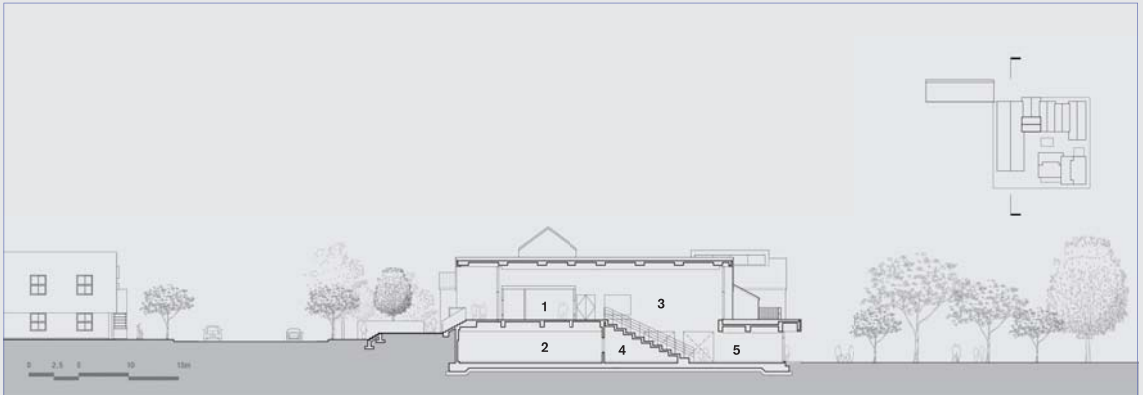
상 남서쪽 입면
하 북측 어린이집에서 바라본 문화의 집

낮고 평평한 아파트 천장, 직육면체 모양의 교실 등 집과 학교 혹은 학원의 정형화된 공간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문화의 집 안팎에서 다채로운 체적의 공간을 겪어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다양한 취미와 특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험은 지나가며 잠시 머물던 청소년을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무기력에서 능동적인 참여로 초대하고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특정 활동에 할애된 개별 공간이 홀로 고립되거나 주변으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인접한 공간들과 끊임없이 시선을 주고받도록 계획되었고,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문화의 집 전체를 회유하며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중성을 위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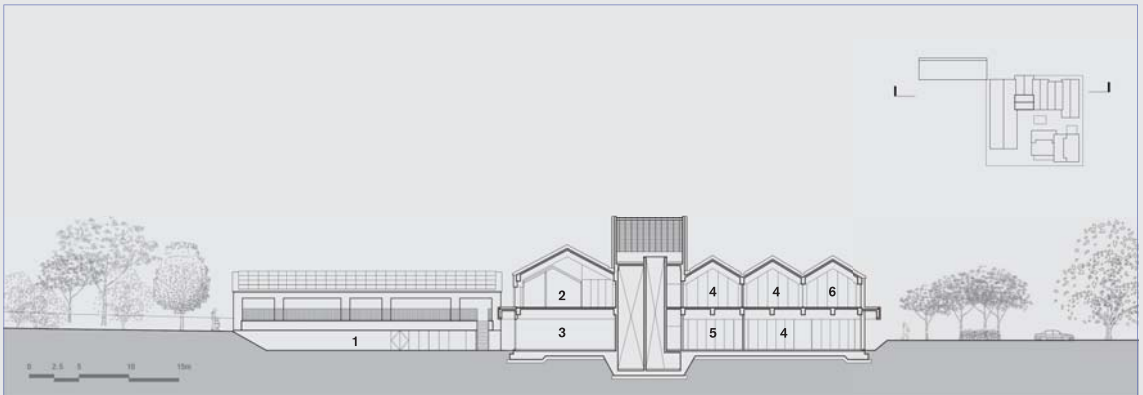
내부공간 경험의 복잡성은 자연스럽게 외부 형태에 반영되었다. 다양한 체적과 형태의 프로그램실들은 ‘집’의 근원적인 형태(archetype)를 떠올리게 하는 박공지붕의 형태로 만들어져, 집들의 군집인 ‘마을’의 형상을 이룬다.

한편 1층과 2층 사이에는 두 가지 기능을 위한 두꺼운 수평 플레이트가 떠 있다. 남측에서 바라본 장면에서는 다양한 건물 볼륨을 하나로 묶는 수평의 띠이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처마의 역할을 하며,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북측에서는 각각의 건물이 올라서 있는 기단이자 2층에 인공지반을 제공하는 테라스로 기능한다. 구별된 덩어리의 집합과 이를 엮고 아우르는 하나의 수평 띠 플레이트라는 형태적 조합은 대지 북측의 어린이집과 남측의 체육공원이라는 다른 환경조건에 반응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중적인 스케일과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며 익숙하고도 낯선 외관을 선사한다. 마치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한테 묶여 부르지만 결코 한 가지 이야기에 담아 낼 수 없는 그 시절의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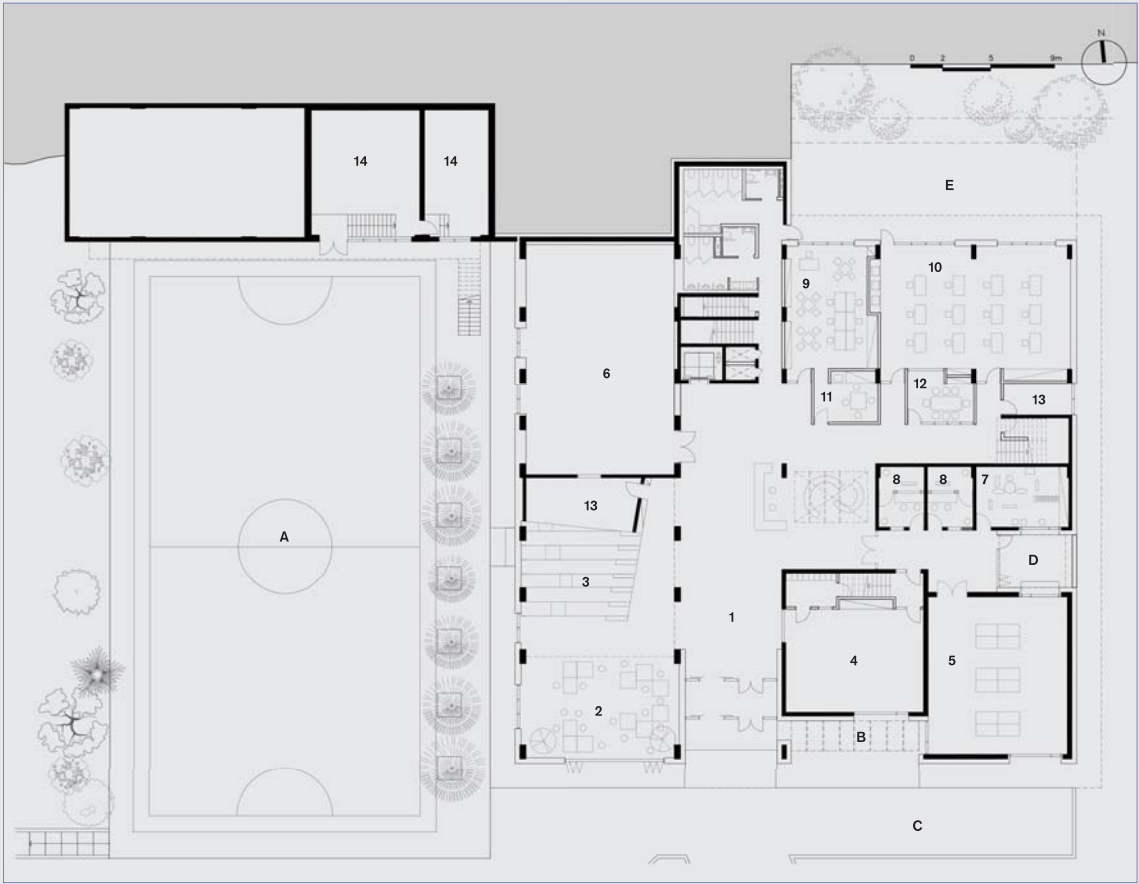
종단면도

- 1 상담센터
- 2 강당
- 3 복카페
- 4 창고
- 5 열린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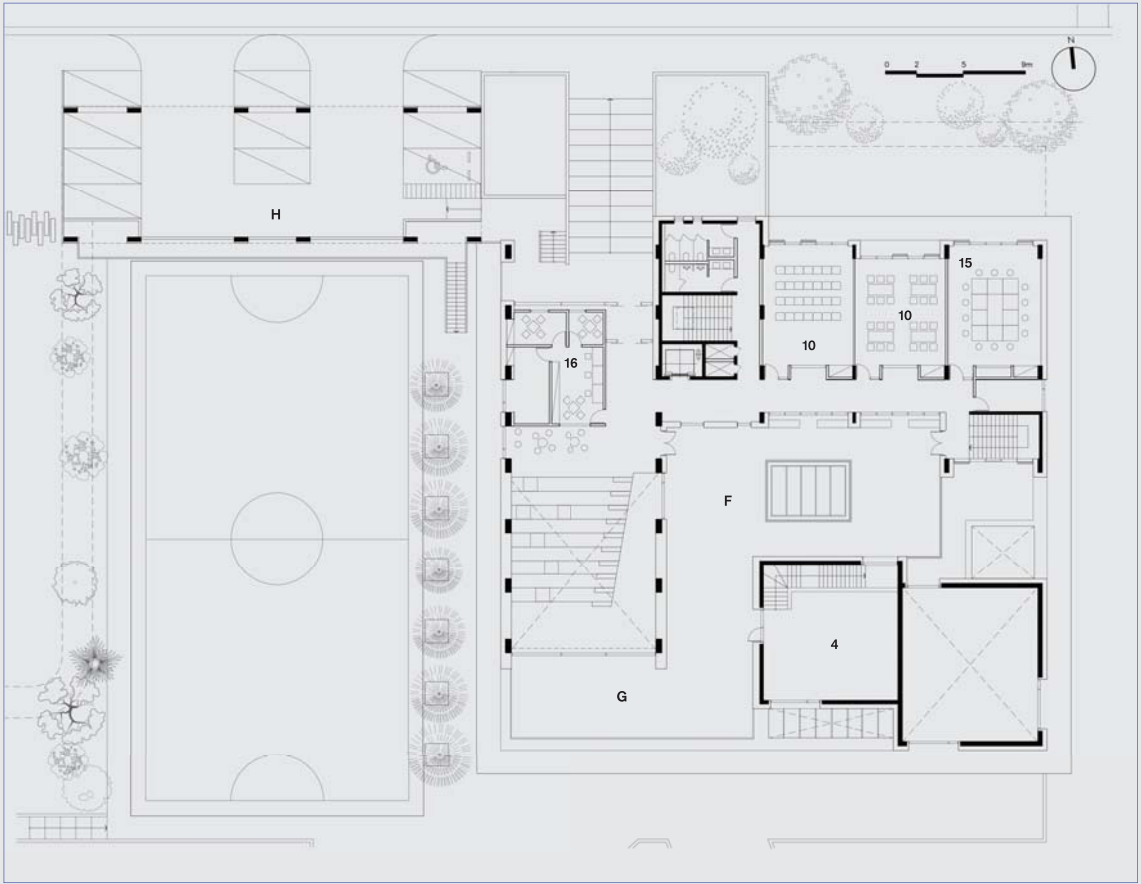


횡단면도

- 1 풋살구장
- 2 상담센터
- 3 강당
- 4 프로그램실
- 5 사무실
- 6 동아리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 | |
|-----------|----------|
| A 꽃살구장 | 1 로비 |
| B 진입부 테라스 | 2 열린휴게공간 |
| C 자전거 주차장 | 3 북카페 |
| D 놀마루 | 4 댄스연습실 |
| E 후정 | 5 체육활동실 |
| F 꿈마루 | 6 강당 |
| G 침마루 | 7 밴드연습실 |
| H 주차장 | 8 노래연습실 |
| | 9 사무실 |
| | 10 프로그램실 |
| | 11 랑비실 |
| | 12 회의실 |
| | 13 창고 |
| | 14 기계전기실 |
| | 15 동아리실 |
| | 16 상담센터 |



상 빛의 우물
중 빛의 우물과 안내 데스크
하 2층 복도와 공유의 벽

빛의 유희

설계 초기단계에서 대지 전체 면적은 실외와 실내로 이등분되었다. 주차장과 풋살구장 등 필요한 실외공간을 제외한 최대 건축면적에 문화의 집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모양을 지닌 집의 형태로 위치한다. 다양한 집들이 이룬 마을 한가운데에 우물이 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머무는 것처럼, 여러 프로그램에 둘러싸인 중심에는 빛의 우물(light-well)이 놓여 풍부한 자연광을 들이고 그곳은 청소년 활동의 구심점이 된다.

광장 아래에 위치한 안내데스크는 문화의 집 입구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 동시에 청소년 지도사들의 업무공간에서도 가까운 곳으로, 문화의 집 전체에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한다. 입구 정면에 놓인 작은 창구 혹은 고립된 방으로서가 아니라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시로 지나다닐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 안내데스크는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의 실질적 사용 주체가 청소년임을 보여준다. 자연광의 색과 강도가 하루 종일 변하는 장면, 그리고 그에 따라 실내공간의 벽과 바닥을 캔버스 삼아 쉽없이 이동하는 그림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중심부에서 가장 일상적이고도 특별한 속성이 된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들 역시 저마다 빛의 옷을 입는다. 육체적인 움직임이 큰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실과 댄스연습실에는 박공 상부 고측창을 통해 간접광이 드리워지고, 여유롭고 느리게 머물기 위한 북카페에는 정사각 천창들을 통해 다양한 크기의 빛 조각들이 경쾌하게 흩어진다. 어두운 복도 끝 주계단실의 높은 층고 위에 위치한 천창은 부드럽게 걸러진 빛을 수직으로 들어오고, 2층의 복도의 전창은 남측 직사광을 공간 안으로 풍부하게 끌어들이는다. 문화의 집 내부에서 청소년들이 움직이거나 머무는 모든 장면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에 의해 특별하게 비추어진다.

두꺼운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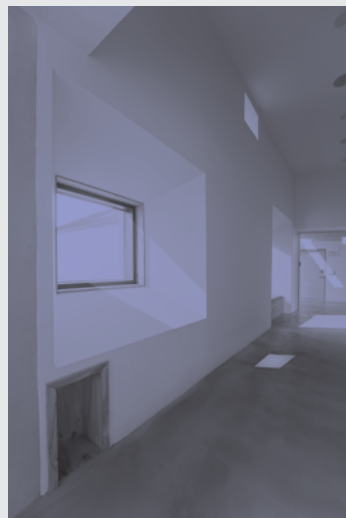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소음을 발생하는 프로그램과 여타 프로그램의 영역이 수평적으로 구분되었고, 소음영역에는 벽구조가 그리고 그 외의 공간에는 기둥구조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구조방식의 적용은 건물의 형태 및 개구부의 성격을 다양하게 규정하며, 특히 외부와 내부 혹은 공간과 공간 사이의 경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얇고 투명한 경계가 아닌, 두껍고 명확한 경계를 통해 전통적인 건축의 가치를 적용하는 방법이 탐구되었다. 기둥구조를 적용한 영역은 공간에 드러나는 두꺼운 경계를 형성하기 위해 가로·세로의 길이 차이가 큰 직사각형(단면치수 300mm×900mm) 기둥을 적용하였다. 기둥의 독립된 성질과 벽의 연속하는 성질을 동시에 지닌 넓은 기둥은 1층 로비와 북카페 공간을 분할하지만 두 공간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동선은 이어주고 흘러보내며, 2층 복도에서는 전용 공간과 공용 공간 사이에서 벤치·진열장·블락이장 등의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공유의 벽을 이룬다.

또한 외부와 면한 넓은 기둥은 북측 입면에서는 기둥의 깊이로 인한 요철을 만들고 남측에서는 빛의 유입량을 조절하는 프레임 역할을 한다. 2층 엘리베이터 앞 대기 공간은 작지만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르코르뷔지에의 롱상성당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둥보구조를 통해 두꺼운 조적조 건축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효과를 거두려고 했기 때문이다. 두꺼운 경계면을 통해 부드러운 빛의 효과를 거두는 것, 두꺼운 경계 그 자체에 머물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두꺼운 경계의 부피를 이용해 개구부의 형태에 조형성을 부여하는 것 등이 그 결과이다.

한편 벽식구조가 적용된 소음부에서는 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계가 구축되었다. 체육활동실, 댄스연습실 등은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 단일 공간으로 계획되었기에 두께 300mm의 내력벽이 구축되었고, 이에 내·외부마감이 더해지면서 약 800mm의 두께를 갖는 개구부가 만들어졌다. 벽 두께를 드러내기 위해 골조 안쪽 마감선에 창호를 설치함으로써 기둥구조 영역 개구부에 비해 한결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다. 하나의 건축물에 두 가지 대별되는 구조방식을 적용하고 두꺼운 경계의 다양한 가치와 효과를 탐구함으로써 역사적인 선례들과 연속성을 찾는 일이 모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충진



상 북카페와 천창
하 2층 엘리베이터 홀 앞 두꺼운 벽



상 체육활동실의 바람개비 배열 개구부
중 댄스연습실 1층에서 바라본 복카페
하 공유의 벽의 앉을 자리와
의자 상부 실내창을 통해 보이는 다목적실

창이라는 그림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다양한 개별공간이 지닌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개구부 배열에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되었다.

첫째는 바람개비 방식의 창 배열인데, 창호가 사방에 위치한 공간은 사용자들의 시선을 적절히 차단하여 둘러싸인 느낌(위요감)을 얻게 함과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유입되는 다른 종류의 빛들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그 예로 체육활동실 내부에서는 공간의 사면에 어긋나게 놓인 복수의 창에 의해 다양한 높이와 방향에서 들어오는 풍경과 빛에 의한 풍성한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는 창과 창이 마주보는 방식의 배열이다. 두꺼운 경계로 인해 자칫 폐쇄적인 성질을 지닐 수 있는 공간은 이러한 방식의 창 배열을 통해 사용자 간의 시선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빠져나가게 된다. 즉 내부의 길고 짧은 길 끝에서 시선이 멈추지 않고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간은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고, 하나의 공간은 그 다음 공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1층의 밴드연습실의 창을 통해 보이는 장면은 공간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다시 밖에서 안으로의 순서를 반복하며 진입도로를 향해 뻗어나가 위계상 건물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 가장 바깥까지 확장하는 시야를 확보한다.

또한 2층 공유의 벽 시창은 복도가 면한 남측 전창과 강의실이 면한 북측 창 사이에 위치하여 내부 사용자의 다양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양방향으로 옮겨 밖에서 보이도록 한다. 이러한 내부의 시창들은 다양한 방식의 열림을 통해 시선의 교차를 도모한다. 서로 다른 연령대의 청소년 그룹은 물론 저마다의 관심사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보여줌과 보임을 통해 다채롭고 활기찬 문화의 집의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고안되었다.

함께 나이드는 재료

청소년 문화의 집에 사용된 재료는 각자의 속성에 따라 조금씩 나이들어 갈 것이다. 외장재로 쓰인 점토벽돌은 흙으로 만든 재료로서 건물의 주변환경인 공원과 그 본질을 공유하며, 앞으로 겪을 많은 계절과 세월의 흔적을 표면에 간직하게 된다.

한편 내부공간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이들어 가는 자연 소재의 재료를 사용함과 더불어, 공간의 마감에 있어 미완결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유년을 벗어나 성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무궁한 열린 결말의 이야기가 잠재해 있는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

의 내부공간을 이루는 요소와 재료들은 완벽하게 제자리에 놓여 완성되었다기보다는 앞으로 변형 가능한 혹은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 가깝다. 콘플로어(바닥), 미송합판과 수지모르타르(벽) 및 익스펜디드 메시철망(천장) 등의 재료들이 이러한 미완성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적용되었다. 실제로 문화의 집 곳곳의 벽은 준공 직후 청소년들이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고, 이와 같은 사용자의 개입은 앞으로도 꾸준히 문화의 집을 조금씩 더 완성해 갈 것으로 기대케 한다.

기억이 놓인 자리

설계로부터 시공 그리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년 만에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문을 열던 5월, 화창한 공기 속에서 건물 곳곳은 시끌벅적한 축제의 분위기로 채워졌다. 넉넉해 보였던 문화의 집 내·외부 공간들은 방문인사와 지역주민들로 가득 차서 이날만은 모든 공간이 비좁아 보일 정도였고, 각각의 실들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 그 공간 쓰임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었다. 개관식의 행사가 식순에 따라 진행되던 중 지역 청소년 대표의 소감 발표가 있었는데, 문화의 집이 지난 세 달간 시범 운영되어 온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짧고도 분명한 바람을 전했다.

공공건물 설계 후 가장 큰 보상이 있다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좋아하고 찾아가서 머물고 즐기는 것을 듣거나 보는 일일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이 건물을 그들의 삶이 담기는 무대로 사용하고, 이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청소년이 어른이 되어 훗날 다시 찾아왔을 때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이곳을 즐겨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충진



상 주출입구 옆 원터
하 2층 심리상담센터에서 바라본 2층 중정